

지역 **메아리**



김제시 소하천정비계획 설명회 개최

김제시가 최근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금산면, 황산면, 용지면 3개소에서 개최하였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김제시 관내 소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제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앞서 각 해당 읍·면·동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사실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해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봉사자 체육대회

김제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김제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교육복지사 모임 등 사회복지 봉사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시 민·관사회복지봉사자 체육대회'가 지난 27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9번째 맞는 체육행사는 김제시(시장 이건설)가 주최하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가 주관한 행사로 사회복지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건설 김제시장을 비롯한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및 의원, 이병관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이 행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었으며, 민·관사회복지봉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 족구, 남녀혼합계주, 팔씨름왕 선발전, 나눔다트 등의 체육경기로 화합을 다졌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사회복지의 참된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이 주인공인 만큼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봉사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복지 파수꾼 역할 '톡톡'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기초생활보상수급자 32가구 49명 결정

완주군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32가구 49명을 기초생활보상수급자로 결정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위원장인 박성일 군수 주재로 생활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가족관계 해체상태 보호 32건,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사안 116건, 2018년 자활기금 계획 등 총 6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오래전 연라두절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가구 등 그간 어려움에 시달려왔던

32가구 49명의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됐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은 116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고,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군민들의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 계획,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는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완주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중·일 작가와 지역주민 소통의 장 열려

김제시 옹기마을, 11월 2일까지... 워크숍·전통 불매기 행사 개최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에 소재한 부거리 옹기마을에서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중·일 대표적 도예작가간의 워크숍 및 전통 불매기 행사가 개최된다.

조선 후기 천주교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옹기를 만들어 팔며 형성되었던 부거리 옹기마을은, 당시 수십여 개의 옹기가마가 있었으나 대부분 멸실되었으며, 그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옹기가마와 전통작업장(등록문화재 403호)을 옹기장 안시성사(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가 사들여 20

여 년째 그 전통의 명맥을 온전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에 옹기장 안시성사는 저명한 한국, 중국, 일본의 도예가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과 작가들간의 작업 노하우를 공개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2년째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7일~28일은 한·중·일 작가의 전통옹기와 현대옹기의 다양한 성형방법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31일 오후 5시에는 제작한 옹기를 가마에 재입하고 전통적인방법으로 불을 지피는 불매기 행사가 개최된다.

이날은 매우 신성한 날이기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사를 지내고 동시에 풍물, 국악공연 등을 하며 축원하고 문화적 소통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청 양문엽 문화홍보축제실장은 "부거리 옹기가 불매기 행사는 절차로 잊혀져가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행사로, 부거리 옹기와 같은 전통공예분야일수록 국제적 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진로교육 콘서트 개최

김제시사람장학재단(이사장 이건설)은 지난 27일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중학생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 족구, 남녀혼합계주, 팔씨름왕 선발전, 나눔다트 등의 체육경기로 화합을 다졌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사회복지의 참된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이 주인공인 만큼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봉사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내기 격려금, 과감한 장학금 지급, 지원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이날 장학재단 관계자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과 같이 과거 부에서 마주하는 세상을 통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일반적인 강연 형태에서 벗어난 성악

전공 전문가와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형식의 진로콘서트는 학생들의 미래 진로와 꿈을 위한 실천 계획과 방법을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행사에 참가한 덕암중 3학년 김모군은 "남보다 나은 길을 가기 위한 진로선택이 아닌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해야겠다"는 참석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김제시와 김제시사람 장학재단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강화 워크숍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 위원회 역량과 6개 읍면협의체 위원들 간의 관계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25일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80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고양시 신도동종합사회복지관 이경은 관장으로 부터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았다.

또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17년도 실무부와 활동과 읍면협의체 활동내용 등을 공유하고 평가와 협의체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전신사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협의체 전체가 모

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도 됐다"며 "민간의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 되고, 사회보장수준 향상과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민·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구성·운영(2015~)되고 있는 단계로, 대표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논의와 정책, 긴급 지원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 무료 건강검진 실시

완주군이 관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 무료 건강검진은 관내 다문화가족 1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혈액, X-ray, 초음파, 심리 검사까지 다양한 검진을 받았다.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완주군이 여성가족부·KRX국민행복재단·중앙대학교병원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협력 시행하는 의료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중앙대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의료진

30여명을 비롯해 약사도 동행해 다문화가족들은 현장에서 약 처방도 받을 수 있었다.

또 원활한 검진을 위해 완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2명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을 도왔고 자원봉사자 17명이 배치되면서 다문화가족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다문화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다문화 공동체에서는 쌀국수와 만두, 커피와 차를 제공해 훈훈한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드림스타트, 군산근대역사문화탐방 실시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군산을 방문,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완주군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은 박물관 관람을 비롯해, 인력거를 타고, 맛집 음식을 먹어보는 등 오감만족형 역사문화체험을 즐겼다.

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근대 거리를 문화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걸으며 근대역사를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멘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터 지역 휘트
중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중국지치 오원 지역중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지역 휘트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